

# 나프타, 5월 수입 10%이상 감소

관세청, 수출 471억달러에 수입 448억달러 ... 무선통신 수출 급감

5월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0.6% 감소해 3개월 연속 뒷걸음쳤다.

중국, 유럽에 이어 미국 수출마저 4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하반기 수출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.

관세청이 발표한 <5월 수출입동향>에 따르면, 5월에는 수출 471억달러, 수입 448억달러로 22억6000만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.

수출과 수입은 4월보다 2.0%, 1.7% 늘어났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0.6%, 1.1% 줄었다. 무역수지 흑자는 4개월 연속, 수출·입 감소는 3개월째 이어졌다.

최대 교역국인 중국 수출이 107억달러로 4.9% 감소해 3월 이후 3개월째 마이너스를 나타냈다.

EU(유럽연합) 수출도 영국(-44.3%), 이태리(-41.7%), 프랑스(-13.6%), 그리스(-36.1%)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급감하면서 46억달러로 0.5% 줄었다.

2월 47.4%, 3월 27.9%, 4월 4.2% 증가한 미국 수출도 47억달러로 8.3% 줄었다.

그나마 중동(24.4%), 동유럽권(7.9%), 동남아(4.6%) 등 신흥 교역국 수출은 호조를 나타냈다.

품목별로는 컴퓨터(19.3%), 철강(7.1%), 기계류(5.7%), 승용차(3.2%) 수출이 증가했지만 유럽발 경제위기의 지속 여파로 무선통신기기(-30.1%), 가전(-9.3%), 선박(-19.4%) 수출은 큰 폭으로 줄었다.

수입은 원유(18.2%), 가스(22.4%), 대두(80.9%), 소맥(34.2%), 자동차(47.1%) 등 원자재와 내구소비재를 중심으로 늘었으나 철강(-14.4%), 나프타(-10.4%), 쌀(-48.3%), 쇠고기(-22.6%), 무선통신기기(-43.8%) 등은 감소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2/06/15>